

상호간 정보교류 및 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먼저 광산업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온갖 어려움도 이겨내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김종수 회장님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외국에 비해 호응도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광관련 산업이 뒤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에 앞장서야 할 국가정책이나 기술육성을 시켜서 이끌어 가야 할 학교 교육 상태가 극히 초보적인 시점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시점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과감한 정부의 지원책이나 고급기술을 양성해 나갈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령 고급 인력 양성 기관이나 정부의 투자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광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간에 상호 연결고리를 만들어 상호간에 정보의 교류와 기술 인력 교환 같은 방법을 시행하여 좀더 빨리 광산업이 세계 무대로의 도약을 이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광산업의 완성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광산업진흥회의 힘찬 전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할 것은 불필요한 공문 같은 송달 보다는 실제 관련 산업체의 피부에 와 닿는 정보나 기술을 탐닉할 수 있는 책자나 문서를 탐구하여 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또 한번 광산업진흥회와 「광산업정보」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신 엔터프라이즈 대표 김 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광(光)산업이란 한마디로 자연광을 포함한 모든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활용하거나 이를 위해 빛(光)을 생성해 내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이런 광산업은 원천핵심기술로 안쓰이는 곳이 없다. 우선 인터넷 속도를 무려 1천배나 빠르게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선명한 화면을 통해 얼굴을 마주보며 통화가능하다.

광컴퓨터, 광디스크 등 정보저장 활용기술과 레이저 치료, 진단 등 의료분야에서는 고통없는 수술이 보편화 되고 태양광 발전은 차원이 다른 환경문제 대안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21세기가 정보화혁명시대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본격적인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산업혁명이 인간의 육체적·물리적인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는 것이었다면 정보화혁명은 인간의 정신적·지적 노동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혁명시대에 기계를 움직이고 이를 확산시킨 것이 석탄이나 석유였다면 정보·지식혁명시대에 이를 널리 보급·확산시키는 것은 인터넷 등 소프트웨어다. 바로 이 부문의 고속화·대용량화를 가능케하는 것이 다름아닌 광케이블·광고환·광전송 등 광통신기술인 것이다.

이처럼 정보·지식혁명시대에 광산업은 정보통신분야의 핵심산업 가운데 하나인 만큼 그 육성과 발전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광주에 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정부가 광주시와 지역민들과 함께 국가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정보통신 분야와 연계해 육성해야 한다.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연구기술인력 확보, 제품개발, 기술종합센터 및 기술연구소 설립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다.

특히 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유발효과도 크지만 고도의 첨단기술집약적인 산업인 관계로 육성기초에 막대한 연구개발투자와 함께 우수한 기술인력확보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나 취약한 지역경제의 힘만으로는 그 육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주)레이닉스 대표 김광경

기술 교류를 비롯한 시너지효과 기대

1990년대에는 반도체와 더불어 전지산업이 세계경제를 주도하였다면, 2000년에는 광산업이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계 광산업의 시장규모는 1998년 현재 1300억 달러로 반도체 시장규모와 비슷하며 2005년에는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며 2013년에는 4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광산업은 초고속 정보통신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원천 핵심기술산업이다.

1990년대 초 일본은 국가를 중심으로 전지업계간에 전지협회를 구성한 후 매년 "전지토론회"라는 기술적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그 기술이 나날이 향상되었고, 정부는 전지산업을 국가기반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일본은 전 세계 전지시장의 90%이상을 석권 할 수 있었다.

한국은 이제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 1999년 국가에서 광산업을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남은 것은 여러 광산업 회원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세계적인 기술력을 축적시키는 일만이 남았다. 광산업은 무공해, 고부가가치의 첨단 업종이며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지만 기술 집약적 산업이기도하다. 고도의 정밀첨단기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때문에 광산업의 성패는 곧 인재확보 등의 인프라구축과 기술경쟁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산업 분야에 있어서 한 광관련 회사가 기존의 제한된 기술력을 가지고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한 채 독자노선을 걷는다면 그 회사는 분명히 몇 년 안에 스스로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각각의 광관련 회원사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아울러 업체간 협력뿐만 아니라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과 국가의 말뿐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매개체 역할을 할 곳이 광산업진흥회라고 생각하며 「광산업정보」지는 그 첫발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와 특히 독일의 아들러스호프 등 광산업 집적화의 성공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 광산업단지가 세계적인 광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며, 다시 한번 「광산업정보」의 창간을 축하한다.

(주)애니셀 대표 임영우

다양한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길...

「광산업정보」 창간호 발간을 회원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기업경영이나 소비생활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연결하여 디지털화된 생활패턴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광산업 시장 규모는 2000억불 규모로 추정되며 년 17%씩 성장하는 것에 비해 전반적으로 국내의 광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60%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광정보통신, 광정밀 기기 부문은 선진국과 5년 안팎의 기술격차를 나타내고 있고, 광학기기 부문도 선진 대비 3년 이내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첨단산업의 기반기술이 되고 파급효과가 큰 신기술의 자립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광산업의 중요성과 밝은 시장전망을 인정하여 2000년부터 국책사업으로 광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관련기업이 주도하는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새로운 마인드로 결성되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조사·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산업은 벤처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규모보다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를 효과적으로 'NET-WORK'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내외 광산업 현황이나 광선진국의 기술개발동향, 국제 시장 동향과 전망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데 「광산업정보」지가 그 임무를 해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국제 경쟁사회에서 비교우위에 서기 위한 신속한 정보수집, 연구·개발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노력에 매진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사구시의 기술, 품질 가격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세협테크닉스 대표 박정수